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지역경제 도움

관람객 15만명 방문... 행사만족도 80.7% 기록 경제활성화 기여

지난 10월에 열린 2016 전주발효식품엑스포가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28일 2016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한 최종 성과보고와 차후 진행할 사후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2016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총 19개국 34개사 377부스 규모로 1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국가산업개발원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 바이어 거래계약액

23억원, 참가기업 B2C 현장 소비자 매출액 22억4,000만원, 행사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47억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가사와 바이어의 행사만족도가 80.7%를 기록하며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존과 다르게 행사 개최 이후에도 참가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소재기업 6개사를 선정해 서울 목동 행복백화점에서 수도권 특별 프로모션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코레일 '전담마루'에 진안

의 애농과 무주의 남영제약이 입점 계약을 체결했고, 행복한 백화점에는 완주의 천연을 비롯한 총 4개사가 입점하는 성과를 기록했으며, 이외에 전주와 익산의 착한음식이 서울 소재 편의점에 입점하고, 할인 마트 등 대형 유통사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향후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내년도 사업에 '엑스포 참여기업 사후관리 단계별 육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식품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행사 개최 이후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유망중소기업육

성지원사업과 창업영세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 수출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화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 맞춤형 홍보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양한 규모의 식품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키로 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발효식품엑스포가 단순히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해 전북 식품 기업들에 희망을 주고 영세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내년도 엑스포에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8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일재 행정부지사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에 희망과 용기를”

건협 전북도회,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추운 날씨와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따뜻한 연말, 불우이웃 돕기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해 28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일재 행정부지사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건협협회 정대영 전북도회장은 “본회의 슬로건 ‘나눔으로 행복건설’로 미래건설’처럼 도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나눔 문화 확산 및 소외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

는데 구심점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009년부터 매년 추석과 연말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하면 총기부누적액은 1억5,000만원이 된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들이 매년 성금을 기탁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서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사회전반에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베트남에 심비디움 수출 길 열었다

(서양 난)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국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비디움 재배농가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수출 시장을 개척해 29일 첫 선적을 한다고 밝혔다.

동남아 나라는 사원에 꽃을 바치고, 호텔·가정 등에 꽃으로 장식하는 등 꽃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고품질 양난인 심비디움을 베트남에 수출하게 됐다. 이번에 수출하는 심비디움은 베트남 국민들이 좋아하는 황금색, 분홍색 등 15종이며 4,400본, 10만 달러에 달한다.

농진청, 오늘 첫 선적... 양난 산업 활력 기대

올해 처녀 수출 물량은 많지 않지만, 베트남 시장을 바탕으로 동남아 양난 시장을 개척한다면 우리나라의 양난 산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심비디움은 2008년 중국 시장에 약 230억 원의 수출 할 정도로 신선농산물 수출의 효자 품목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로 수출이 둔화되고, 국내 소비도 줄면서 심비디움 재배

농가의 소득이 떨어져 재배 농가마저 크게 줄었다.

이번 심비디움의 베트남 수출은 농촌진흥청 내 여러 부서와 농업인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

농진청총청 농산업경영과는 수출농가 조직화와 수출대상 나라를 방문해 선호 품종과 품질 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또한 화훼과는 2013년부터 개발한

‘레드선’ 등 5품종을 포함해 총 8종, 7,500주를 수출농가와 시범재배하면서 품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도로 국산품종 보급에 노력해 왔다.

수출농업지원과는 통관절차 등을 통합정보(One Stop Service)로 제공하면서, 수출한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내 심비디움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병우 농산업경영산업과장은 “앞으로 화훼재배농가, 수출업체 등과 협력해 심비디움 100만 불 수출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 시장을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개공, 진안·무주군에 임대주택 건립

진안읍 군상리 일원 110세대·무주 설천면 50세대 공급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농어촌 임대주택이 진안·무주군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농어촌 임대주택은 진안읍 군상리 일원에 전용50㎡규모(25평형)로 110세대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태권도원 일원에 전용49㎡규모(21평형)로 50세대이다.

전북도의 사업비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도내 동부권 4개지역에 추진되며, 1단계 선도사업(장수읍)은 올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진안, 무주군에 추진되는 2단계사업은 지난 8일에 공사 이사회 의결된 바 있으며, 내년 초 '전북도-진안군-

무주군-전북개발공사' 간 기관별 역할 분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이 본격 추진 될 예정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 상반기 보상 및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진안, 무주지역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공사의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銀, 남성태·두형진 부행장보 선임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017년 1월 1일자로 남성태 감사부장과 두형진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을 선임 부행장보로 선임했다.

남성태 부행장보는 1963년 전주 출신으로 완산고와 전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입행 후 유아동 직접장과 감사부장 등을 거쳐 이번에 부행장보로 선임됐다.

두형진 부행장보는 1965년 옥구 출신으로 군산상고와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다. 1988년 입행했으며 전북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거쳐 제16, 17대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다.

/인재용 기자



남성태 두형진

한편 백종일, 서한국, 김병용, 이정영, 진영찬 부행장보는 연임했으며, 임원 업무 분장은 신임 임원 위촉 발령 후 공지한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AI 매물작업 인력 추가지원

김제 용지면 송산리 양계농장

전북농협이 28일 전북농협 전남인 단장이상 간부급과 농·축협 임직원 등 긴급 투입해 김제 용지면 송산리 양계농장에서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날 살처분에는 김태호 본부장장 최용구 은행본부장, 김형만 경제부장 등 간부 27명과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용지농협 박광양 조합장을 비롯한 전주김제완주축협 임직원 21명, 용지농협 임직원 6명 등 60여명을 긴급투입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번 살처분 인력지원은 지난 24일 주말에 이어 두번째다.

전북 농협은 지난 16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지역본부, 시군지부를 포함한 관련 사업장의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여 기능 중이다.

또한 시군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역 구역을 선정하고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및 농협보유 광역 살포기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확인 후 함께 농장의 애로사항, 특이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LX공사, 시각장애인연 성금 전달

공간정보를 선도하는 LX공사가 연말을 맞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찾아 성금을 기탁했다.

LX공사는 28일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써달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북지부를 방문해 100만원의 성금과 점자달력 2000부를 쾌척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